

본문 : 로마서 12 장 1-2 절

제목 : Secular-Saints

1. 죄 아래 갇힌 몸

8 월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여름도 가을에 자리를 내어주며 서서히 물러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더운 여름이 너무 힘들다고 어머님께 투정을 부리면 어머니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도 저 뜨거운 햇빛을 받아야 벼가 여물어 가는 것이다." 뜨거운 햇살에 과일도 곡식도 그렇게 여물어 가면서 바야흐로 추수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여물어 가고 계신가요? 어제 보다 나은 오늘이 되고자 하는 꿈을 포기해 버린 것은 아니시죠? 여전히 어둠 속에서 바장이며 욕망의 길에서 비틀거리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어둠 속에서도 예수라는 참 빛을 향한 우리의 순례의 길을 계속 이어가고 계신가요? 오늘은 성서일과 본문 중 로마서 12 장 말씀을 통해 참빛 되신 예수께서 어둠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빛을 지향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수 차례 강조합니다. 로마서 3 장 23 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로마서 3 장 9 절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죠. 바울은 강력한 죄의 인력에 질질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는 자신의 육신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로마서 7 장 18 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7 장 24 절 말씀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몸이 원하는 욕망의 지배를 받는 자신의 한계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비장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깊이 성찰하는 이가 아니고서는 이런 인식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사람답게 살아보고자 하지만 번번히 미끌어져버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해 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8 장 7 절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자신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 절망할 수 밖에 없음을 깊이 자각한 것이죠.

2. 자비를 입은 자의 마땅한 반응

하지만 바울은 죄의 법이 지배하는 자신의 육신 위에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역사할 때 참 해방을 경험하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신을 지배할 때 자연스럽게 자유를 경험하게 됨을 알게 된 것이죠. 로마서는 이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11 장까지 길게 설명한 이후에 등장하는 접속사가 12 장 1 절의 “그러므로”입니다. 로마서 10 장 10 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바울은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끝이 아님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러므로”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편지를 읽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임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삶을 강조하기 위해 “그러므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지 감격한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마음의 구원에 이른 여러분은 이제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분리된 신앙, 신앙과 삶이 동떨어지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몸을 사용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합당하다로 번역된 헬라말은 ‘logikos’입니다. Logos 가 변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로지컬하다, 논리적이다, reasonable 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받아 드려질 만한 예배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의 실천, 순종이 따르는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3. 산 제물

산 제물이란 말은 모순된 말입니다. 죽어야 제물인데, 제물이 살아 있다면 그것이 제물이겠습니까? 그런데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죽은 제물을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번제, 화목제 할 것 없이 짐승을 죽여 바치는 모든 제사에는 죽은 짐승의 사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구약의 제사를 없애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제물이 드려지는 제사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리는 방식의 제사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이들에게 기대되는 예배의 방식이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감격한 자의 마땅한 반응이 바로 몸 봉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고전 3:16)” 바울은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이해했습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예배당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값없이 베푸신 은혜로 새롭게 빚어진 이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몸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을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산제물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살아 있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셨습니까? 바다 보다 더 넓고 파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자비를 경함한 자들의 마땅한 반응은 산 제물로 드리는 몸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믿음은 삶의 문제이지 마음만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삶과 동떨어진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대교리문답>에서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옛 아담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 그러니까 믿는 이들의 삶이란 ‘매일 세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매일 옛 존재와 작별하고 새로운 존재로 옷 입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일상은 그 자체가 예배가 됩니다. 믿음의 삶에 두 가지 단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받아들였다면 그 감격으로 우리 몸의 욕망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4.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요구 되어지는 삶을 2 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히 보입니다. 바울의 2 절의 권면은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삶이 불가능할 것 같아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Primary Goal 로 놓고 살아가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채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풍조가 우리 마음의 자리를 꿰차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살아가는 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포메이션의 관점으로 본문을 보면 무척 흥미롭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을 바울은 ‘이 시대의 풍조’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의 풍조라는 세상의 틀이 우리를 그 안에 format 하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 그 틀에 우리가 맞춰져 포메이션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틀에 우리를 끼워 맞추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 속으로부터 일어난 변화가 세상을 다른 모양으로 format 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아주 큰 차이입니다. 물이 농도차이에 의해 이동해 가는 것을 삼투압(Osmotic Pressure)이라고 하죠. 우리가 세상을 삼투압으로 변화시켜야지, 역삼투압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웨퍼라는 기독교 변증가는 세속 사회에 살아가지만 세속 사회 안에서 변화시켜가는 그리스도인들을 “Secular-saints”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참여 하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진정한 세속적인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5. 다른 삶을 상상하는 사람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상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류 질서가 우리를 길들인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그분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대를 꿰뚫어 보는 혜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시대의 가치관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화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신기루를 좇아 살아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오늘 날의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그대로 작동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따르는 삶을 갈망합니다. 하고 싶은 일과 갖고 싶은 것을 제한 없이 갖고 싶어합니다. 전능한 삶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능함을 주는 것이 있죠. 바로 돈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좇느라 숨을 헐떡이며 질주합니다. 목사님 또 저 이야기 시작하시네 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를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작동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시대는 남들과 구별된 존재가 되라고 합니다. 그 말의 주술에 걸린 사람들은 남들이 갖지 못한 것과 여간해서 갖기 힘든 것을 갖고 싶어합니다. '희소성'이야 말로 자기를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죠. 자본주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욕망을 조작하려고 합니다. 굳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광고를 통해 꼭 필요한 것처럼 여기게 만들죠. 광고야 말로 욕망을 조작하는 자본주의의 첩병입니다. 이 물건을 가지면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의 욕망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공급을 맞추려고 하는 기업은 망합니다. 수요를 만들어내고 창출해 내는 것이 기업들의 전략입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조작하는 것이죠. 조작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돈이고, 사람들은 그 돈을 얻기 위해 분주하게 달려갑니다. 돈을 향해 질주하는 동안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웃을 잊고 살아갑니다. 조작된 욕망을 향해 질주하는 사람들은 이웃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남들과 구별되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우리는 '함께함'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 우리는 속절없이 세상의 인력에 끌려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6.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삶의 지향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고, 욕망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연약한 몸매에 갇힌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걸까요?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향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 던지기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 불가능해 보이던 삶이 가능해 집니다. 어린 시절 바깥에서 놀다보면 많이 까지고 상처를 달고 살았습니다. 커다란 딱지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그 딱지를 그냥 지켜 보지 못하고 뜯어내기 일쑤였습니다. 딱딱하고 오래된 옛 자아는 안에서 새살이 돌아나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나고 의미있다고 느껴지면, 그동안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다른 재미들은 저절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뚫고 나와 내 바깥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기뻐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에서 멈추지 않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신앙을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Discern 은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덕목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 삶의 인력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과 거짓, 빛과 어둠이 뒤섞인 세상에서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늘 악의 노리갯감의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분별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의 경건 생활입니다. 매일 아침 읽는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영유아부 교사들과 학부모 그룹 그리고 청년 그룹 안에서 성서일과와 함께 공유해드리는 daily reading bible 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무브먼트가 시작됐다 들었습니다. 이런 무브먼트들이 목장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필수적입니다. 세상의 조작된 욕망은 우리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멈춰 설 용기를 빼앗아 가 버립니다. 이런 세대는 심심하게 가만히 있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수레바퀴가 굴러갈 힘은 멈춰 섬과 깊은 심심함에서 생기는 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마음이 심란할 때 불을 끄고 어둠과 침묵 속에서 빛 되신 주님을 찾는 침묵 기도는 제가 자주 하는 신앙의 실천입니다. 욕망을 잠재우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도록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우리는 새 살이 돌아 딱지가 자연스럽게 떨어져 가는 시간을 기다릴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묵 기도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의 리듬에 나를 맞추기 위한 중요한 신앙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요기도회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안에 잠잠히 머물며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죠. 뜨거운 뉘앙스에 익어가는 곡식들이 고개를 숙이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 위에 내리쬐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일상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